



쉬운 글과 그림으로 보는 자연 이야기
도로를 건너는 야생동물

국립생태원 엮음

본문 80쪽 / 값 12,000원

판형 198×265mm / 양장

2023년 12월 20일 출간 / 초등 저학년 이상

ISBN 979-11-6698-333-7(14400) / 세트 979-11-90518-20-8

쉬운 글·그림: 소소한소통

‘로드킬’이라는 말 들어 본 적 있나요?

야생동물이 자동차에 치여 죽는 것을 로드킬이라고 해요.

지금도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도로 위에서 죽고 있어요.

야생동물이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로드킬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1. 국립생태원이 쉬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쉬운 글과 그림으로 보는 자연 이야기’ 시리즈는 국립생태원이 출간한 다양한 도서들이 가지고 있는 생태와 관련된 정보와 가치들을 쉬운 말과 그림으로 풀어 발달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노인, 청각장애인 등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 ‘도로를 건너는 야생동물’ 기획 의도

길에서 고라니, 고양이와 같은 동물이 차에 치여 죽은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있나요? 로드킬(동물 차길 사고)는 누구나 보고 들어봤을 정도로 아주 흔하고, 기록된 사고 수 보다 실제로 배는 발생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크기가 작은 동물은 흔적이 금방 사라져 버려 잘 알 수도 없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이 책을 통해 ‘공존’이라는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인간은 도로 덕분에 자동차를 타고 더 멀리,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지만 야생동물은 도로 때문에 집을 잃고, 목숨도 잃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독자가 로드킬에 대한 찜찜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하여 로드킬에 더욱 관심을 갖고, 현명한 대처와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갔으면 합니다. 문해력이 낮은 발달장애인, 어린이, 노인,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글과 그림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고, 죽음으로 야기되는 무거운 분위기 속 도로 위 생명을 지키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존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수록하였습니다.

3. '도로를 건너는 야생동물' 특징점

이 책은 2016년 10월 국립생태원이 출간한 '도로 위의 야생동물'의 일부를 뽑아 쉬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문장을 쉽게 풀어 쓰고 단어를 쉽게 바꿔서 만들었습니다. 고라니와 고양이와 주고 받는 대화로 이어질 내용에 대해 흥미를 유발하고, 국립생태원이 로드킬을 조사하고 연구하며 확보한 로드킬 통계와 사진 등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감수를 통해 쉬운 정보를 점검하였습니다.

4. '도로를 건너는 야생동물' 본문 미리보기

우리나라에서 로드킬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부터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도로도 많이 늘어났지요. 산이나 논밭이 있던 곳에 도로가 생기고 도로 위를 지나는 동물들도 많아졌어요.

자동차도 많아지고, 도로도 많아지자 로드킬을 당하는 동물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지요. 이전까지 '야생동물 교통사고', '총돌 사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로드킬'은 1990년대부터 '로드킬'이라는 단어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여러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부를 수 있는 단어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사진 1-4 로드킬을 당한 고라니

더 알아보기

도로가 일으키는 문제

사라져 가는 동물들의 집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물이 살던 땅의 크기는 도로가 생긴 만큼 줄어들어요.
하나였던 땅은 두 개로 나뉘게 되고요. 동물들이 살던 곳이 조각조각 되고, 줄어들는 거예요.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넓은 땅 가운데에서 살던 동물들은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집을 찾아야만 해요.
사람들이 오지 않던 넓은 땅도, 깊숙한 숲에서만 자라던 나무와 풀도 사라졌거든요.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도로가 생기면 도로 주변 모습도 달라져요.
사람이 갈 수 있던 곳에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게 된 만큼 사람들이 도로 주변에도 더 자주 찾아가게 되지요.
도로 주변에 있는 나무와 풀을 없애고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짓기도 해요. 도로가 생기면 도로 주변도 동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